

기존 동부기아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023-4000

영예회장: 노태환/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0-33/ 대표전화: 737-8881/ 편집국: 722-4162/ 팩스: 737-0698/ 광고국: 737-0692/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3월 1일 수요일 (주간)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행방을 잃어 버린들
막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창이함)

법회 안내

- 각명사 (02)387-3510
산중기도 매일 1~3일(음)
경가법회 매일 15일(음)
자장재일 매일 18일(음)
관음재일 매일 24일(음)
화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 보문사 (02)728-3797
보리화법회 매일 3일
장엄법회 매주 목 오후2시
청년법회 매주 토 오후6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연화어린이회 일 오전10시
- 계룡산 자광사 (042)822-9219
산중기도 매일 1일(음)
화엄법회 매일 7일(음)
시집법회 매일 18일(음)
관음법회 매일 24일(음)
상지순례 매일 15일
거사법회 월·목·토 오후7시
철야기도 매일 셋째 토 오후7시
화생법회 매주 토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속초 원각사 (0392)33-389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불법회 매주 목 오후3시
대불법회 매주 목 오후3시
청년법회 매주 월 오후7시
달가회 매일 14. 24일 오후6시
금강회 매일 10일 오후7시
거사법회 매일 둘째 수 오후7시
군법회 매주 일 오후1시
가람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금교법회 매주 금 오후7시
- 광주 금교회관(062)224-0175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6시
정기법회 매주 토 오후3시
평택 명법사(0333)655-321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거사법회 월·목·토 오후7시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
랑·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교계 면학열풍 불고 있다

본말사 주지·포교사·신도대상 연수교육 줄이어
교양대학 급증...바른 신행·사회적 기능 밑거름

불교계에 교학열풍이 불고 있다. 승·재가를 막론하고 '배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21세기를 대비하듯 거세게 일고있다. 특히 한국불교는 선불교라는 미명하에 '알음알이로 해라'는 말만 앞세워 불교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조계종은 교년들이 포교원과 포교원을 발원으로 독립시키고 '성교양·후학도'를 승공운동차원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포교원과 교학열풍은 예전의 대부분을 교육부문에 집중해 놓고 총무장정을 비롯 본말사 주지, 총무원에 걸친 포교사, 신도에 이르기까지 전 불교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첫 발걸음인 본사주지 및 중진스님 연수회가 지난 20일 직지사에서 열렸다. 전 현직 본사주지와 지도급 스님들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지자체와 다변화 사회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어 성공리에 마쳤다. 승가의 교육강화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젊은 승려들의 모임인 실천불교승가회, 선우도당, 21세기불교연구회를 주축으로 재기되었던 부분이다. 이들 승려들의 모임은 새기나, 보리등을 통해 꾸준히 승가의 교육부문에 대해 자학하고 대안을 내놓아 개혁의지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공부하는 열기는 승가보다 재가불자들 사이에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재가자를 위한 불교교양대학이 생기고 불교관련 서적이 매년 20여종 쏟아져 나오는 활기가 넘친다. 이러한 움직임은 90년대 중반인 요즈음 일정을 이루어 사회적으로 교양강화를 꾀하는 한편 불교강화가 진척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불교교양을

개별한 사찰 및 대학은 2백여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95학년도 불교교양대학 졸업생 가운데 5백여명이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가교육기관 가운데는 환경연구소, 불교사회연구소 등의 사회문제, 환경 등 현대사회와 안고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하는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다. 또한 지방별, 지역별로

경쟁을 공부하는 소그룹 공부 모임까지 급증하고 있다. 배워야 한다는 열풍은 최첨단 기기인 컴퓨터에서도 활기를 띄고있다. 컴퓨터종신자들의 모임인 불교컴퓨터동호회는 3천여명의 회원들이 경전을 비롯 신행을 통해 불교를 접하고 있다. 또한 불교방송이 컴퓨터통신을 통해 제공하는 불교관련 정보가 불지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인기를 끌고있으며 교계일부에서 경전의 전자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미래불교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교계의, 해위야 한다

는 열기에 대해 부산불교교육인 경기도 임장은 "불교를 너무 모르고 행하는 불자들이 이제 는 알고 행하는 바탕으로 기독교를 탈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진단하고 "불교의 백년대계와 세계화를 위해서는 양보다 질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바른신행은 불교의 사회적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가는 지름길이기때 불교계의 교육열풍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준엽 기자>



다시 조발심 김천 직지사서 2박3일간 개최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및 중진스님 연수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조발심으로 돌아가 시종 진지했다.

직지사 연수 현장 취재기

월주 녹암 고산 보살 도원스님, 법령한 불어도 한국불교계를 움직이는 대표자급 스님들임을 알 수 있는 거두들이면 앞자리에 좌장, 그 뒤로 원사장관 박봉원 원사, 원사도원스님, 중진스님들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90분 강의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하고 있다. "조발심대 마음으로 돌아가 교육받았다" 김천 직지사서 열린 조계종 본사 주지·중진스님 연수회 마지막 결구회에서 총무원장 원주스님이 이렇듯 소감을 말하자 대다수 스님들이 동의하는 낯빛이었다. 20일 입재한, 본사 주지 18

명을 비롯 33명 스님들은 22일 회담에 진한 바집일이 교육원장 스님으로부터 교육원장서를 받았다. 교육원장서를 받드는 스님들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일제식대 적러입문을 내린 원로회의장 해암스님과 특강을 실시한 관음스님(직지사 조실) 두분 다 교계의 중진스님들이 함께 모여 교육을 받는다는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해암스님은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이름 하는 겁에 면날 먹을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교육이 실시되는 것에 큰 기대를 표실했다. 연수일정은 원만한 기업체 연수는 지리거리 항만을 박박 했지만 현차의 오차도 없이 진행됐다. 새벽 3시 기상과 더불어 3시

상기한다 공명하게 비칠한다. 오전에 두개의 강의-한국사 회에서 종교현황 "사회화와 우리의 자세, 신행 살하기로 이끄는 원사 포교원장스님은 "본스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려나 할도 잘 안나오고 빌린다"며 조심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의로만 40년 이상을 보낸 김중서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강의중 몇 번이나 "속된 표현 좀 하였습니다"는 말을 반복해 교계 대표급 스님들에 대한 강의준비에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짐작케 했다. 교계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과연 얼마나 참석했까, 중

수료증 받고 "환한 웃음"...총무원장도 싸리비 청소

받은 유치원생의 열거처럼 환한 웃음이 가득 담긴다. 현차리에 모이기가 허물과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말처럼 바쁘기 한량없는 본사 전·현직 주지들, 교계 중진스님들은 대동방에서 함께 속삭이며 2박 3일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총무원장스님부터 전원이 싸리비를 들고 경내 이곳저곳을 청소했다. 철쭉같은 어둠속에서 청소해 물두레 있는 스님들, 그 옛날 형제애의 생활을

즐거·열반절기념 강연

제1회 현대불교 문화강좌개설

현대불교신문은 출가·열반절을 기념해 제1회 문화강좌를 3월10일과 14일에 개최합니다. 출가와 열반의 참뜻을 새기고 우리의 삶을 보다 건실하게 가꾸길 방안을 제시하게 될 이번 문화강좌에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위대한 출가·개달음" **"논뜨기 마음열기"**



●강사: 정락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강사: 고은선생
(시인·본지 논설위원)

● 3월10일 오후 6시30분 ● 3월14일 오후 6시30분
● 장소: 한마음불교회관 지하 복수전산실

참가 안내

- 선착순 1백명에 한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겐 한방차와 기념품, 책판 여시야문 도서구입 10%할인 부품을 드립니다.
- 회비 3천원입니다.
- 문의처: 722-4162, 737-8881

서울시 중구 경지동 110-33번지 한마음불교회관

현대불교신문사

도에 가버리는 스님들이 많지 않을가 하는 참의수에 대해서도 사상이 출된 이번 연수의 평가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자책평가에서 참어 스님들은 분임토의가 없었다는 것, 초빙강사들이 불교와 연관시키기보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만 한다는 등 감을 표시했다. 고산스님(호계원장)의 다음과 같은 말이 스님들의 소감을 대변해 주고 있다. "처음에는 눈을 우리를 데려다 무엇을 가르칠란가 의문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본사 주지고 교계중진들이면 전부 지도자들인데 무얼 가르칠건가... 앉아서 듣다나 가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감의를 하나 하나 물어 보니까 부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 하나 없이 전부 들을 만 하더라고요. 역시 열반하는 그 순간까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직지사=이경숙 기자)

이번호 (3월 1일자) 20면 발행

신학기엔 좀 잘나가보자! 라피도 스포츠슈즈



- 3TD-SB381/B3 W48,000
- RJD-SD1A1 W39,000
- 3QD-S132A1 W17,000
- 3QD-SB3381/B3 W52,000

신학기엔 좀 튀어보자! 라피도 가방



- 3QD-B199R W25,000
- 3QD-B185R W25,000
- 3QD-B188R W22,000
- 3QD-B189R W26,000

